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兼
編輯人 崔 主 鎬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大 學 校 同 審 會
郵便番號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 話 : 702-2233~5, 717-8536~7.
F A X : 703-0755.

銀行支票番號 : 7500875
對 訂 口 座 : 010017-31-0621565

母校 開校기념일 맞아 「學事운용쇄신방안」 마련



표지 설명
[제14회 문화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사진①). 이날 흥起邑人 박현기(朴顯基)가 「자랑스런 서울大人」으로 선정됐다 (사진②). 팔련기사 5面.]

그동안 他率의인 競爭體制導入으로 教授의 任期制 昇進에서의 엄격한 論文審查制 採用에 있어서의公正性確保를 위한 인사위원회제도 등이實現되었으나 그效果를 거둘 수는 없었고 大學教員의身分危機 學問의自由의侵害 등이 녹아되어 86년의 民主化 이후 他律의인 競爭體制은廢止되기에 이르렀다. 또 學園民主화로 總學長選舉制가 실시됨으로 1人1票制度에 따른位階秩序의沒落을 가져왔고 學者の權威는 떨어지고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大學本部는 自律의인 競爭體制의導入를 위하여 教授評價制를 實시하

母校는 冠岳으로의 統合後 두차례의 10個年發展計劃과 長期發展計劃을樹立하여 民族의 大學에서 世界의 大學으로 雄飛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學部學生數의 增加研究費不足、競爭體制의 不在로 말미암아 教授對學生數의 比率이 라는가.人文·社會系에 대한 研究費의 不足、落後한 圖書館施設安易한人事政策에 따라 世界大學의 進進을 따라 잡기는 커녕 落後를 거듭하였다.

母校는 지난 10月 15日 第46回 開校記念日을 맞았다. 이날을 期하여 金鍾云總長은 記念式을 가져 長期勤續公務員에 대한 表彰을 하고 「사랑스러운 서을 大人」을 發表하였다. 이에 앞서 開校에 參與한 記者會員을 갖고 母校를 研究中大로 發展시키기 위한 研究會 계획을 發표하였다. 이 研究中心大學에 대해서는 學內外의 많은 關心을 끌어 激勵의 소리가 높다.

母校는 1946年 서을에 있었던 國立大學과 專門學校들을 統廢合하 여 國立서울大學로 再發足한 後 많은 發展을 하여 왔다. 우선 校舍를 統合하여 聯立大學에서 綜合大學으로 發展하였고 大學들의 再配分과 教授의 再配置를 가져왔고 圖書館을 統合하여 教育에 있어서의 能率性과 研究의 效率性을 期하였다. 1975年の冠岳으로의 移轉과 校舍의 新築은 可視的인 發展을 상상하는 것이다.

研究中心大學으로의挑戰

母校가 國立大學校設置수의 的な規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서上特殊性을 가지게 되었거나 大學院大學으로의 研究教育을 위한 특별한 支援이 없었던 타에 落後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 碩士課程이 附設되면 教授本俸에 4%를 加算하고 博士課程이 附設되면 8%를 加算하게 되어 있는데 이 制度나마 본론이 밤아야 할 것이다. 博士論文指導나 博士論文指導를 離은 一指導費도 주지 않으면서 研究·指導만 강조하는 것은 無理라고 하겠다.

日本이나 獨逸 등 大學의 研究가 활
발한 것은 講座制度를導入했기 때문이
다. 한 講座에 教授 助教授 助教 讲師의
가 있어 集體的인 研究가 가능하며
正教授는 研究所 所長을 겸하고 있어
어 타이포스트、司書등 行政의
支援體制가 完備되어 있어 研究結果
果가 量產되고 있다. 研究中心大學
의 造成부터 먼저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많기 때문이다.

冠岳春秋

基로 한것으로 안다。教授評價制에는
長短點이 있는데 評價主體가 누구나 하
는 것이 문제된다。이제까지도 同僚에
의한 평價制은 왜해였는데 이것이 効果

本會는 지난 10월 13일 모교 개교 기념행사 일시 귀국한 유럽지역 동문대표 3인을 초청, 리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 했다.
崔主鏞 회장 鄭宗澤 상임 부회장 曹奭사무처장 裴茂基교기획실장과 영국 의康哲壽(58년)工大卒) 독일의 金春秋(61년)文理 대卒) 코링스의 成哥子(76년)師大卒)동문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歐洲동문대표들이 현지동물들의

歐洲동창회 活性방안 모색

유럽同門대표 초치、간담회 開催

현황을 보고하면서 본회가
支部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崔회장은 「그
간 異國에서 同門愛를
지 않고 서물大人的 유대를
다지는데 앞장서온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한
『美洲 지역의 동창회조직
구성이 일차적으로 완료된
만큼 내년도에는 유럽지역
동창회 결성의 전기를 마련
키 위해 현지를 순방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獸醫科大學同窓會(회장
金範來)는 지난 달 3일 농
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에서 2백50여명의 동문과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9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
다.

獸醫大동창회 定總



◇ 李禮植회장

耳順同門테니스회 9회 대회 개최 새회장도 선임

한부회장단과 감사들을 유임시키고, 나머지 부회장단의 추가구성을 회장에 게 위임함으로써 제2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3일 오전 8시 **冠岳캠퍼스 교수코트**에서 제9회 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서너차례씩 각 단과대학 출신 53명의 윌로동문들이 모여 노인장을과

文理科大學同窓會(회장
崔永范)는 이달 13일(金)
오후 6시 헬스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文理大人의
재결속」을 다지는 總會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모임을 계기
로 그동안 활동이 미비하
던 일부 학과의 동문회 활
동도 도학의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文理 16회 同期會
창립총회 열어

13日 힐튼호텔서 總會 예정

文理大 자결속 움직임

회를 결해 열려 더욱 행사 를 뜻깊게 했다.
이 날 출발지인 관악캠퍼스 정문 앞에는 이를 아침부터 삼십오오 명을 들을 틈이 모여들어 접수를 마친 뒤 사무처에서 준비한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지를 받아들 퉁산에 나섰다. 9시 정각에 동창회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출정을 선두로 해 고 퉁산 안내는 작년에 이어 을해에도 宇成産業산학팀 이 말아 퉁문가족들의 안전한 산행을 도왔다.
이제 막 달통이 물들기 시작한 관악산계곡을 따라 목적지에 속속 도착한 동

詳報二 5面

歯大식당
開館
出捐
16·26期서

16回同期會 58년
학인회 4회 55명으로 작고 33명, 해외인주 20명이
명 주수를 67명으로 제외한 2회 70명이 이루어져 있다.

雨同文(文學部)副會長
采雨同文(文學部)副會長
金曉經同文(理學部)
회장)을 선임했다. 또
감사에는 尹錫喆(尹錫哲)이
임명되었다.

장金在允(61년卒)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산아트갤러리에서 '돌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門展』을 개최했다.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정의 努力を 꾸준히 계속하여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46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가 책임과使命이 있습니다.



尊敬하는 内外貴賓여러분、親愛하는
서울大學校同門、教職員、學生여러 분은
우리가 賀하고 獻를 다짐하는 契機가 되어야 할 줄
로 암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歷史의 離변
기를 거쳐 온전한 民族과 社會
의 앞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座標
다.

慶祝하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서울대학교는 發展을構想하고 그
시작을 다짐하는 契機가 되어야 할 줄
오늘 이 式典은 그간의 業績을 致



崔主鎬 회장



金鍾云 총장

지금 세계는 急速하게 变하고 있습
니다. 우리는 歷史의 變化 속에 適應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開되고 있는 것도, 한 나라의 軍事
力—經濟力 나아가 國力도 이제는 科
學技術의 力量에 의해서 달라져 가고
있는 것도 昨今의 現實입니다. 바로
지금 애말로 우리 서울대인들의 우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技術開發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이 軍事力競爭보다 더 치열하게 展
開하고 對處해야 할 중요한 時點에 와
있습니다. 先進各國의 技術開發 競爭
에서 대승하는 보다 무거운 責任과 使命이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技術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이 軍事力競爭보다 더 치열하게 展
開하고 對處해야 할 중요한 時point에 와
있습니다. 先進各國의 技術開發 競爭
에서 대승하는 보다 무거운 責任과 使命이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technology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technology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technology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technology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technology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technology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technology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technology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所任

수한 두뇌를 실현 활용하여 科學technology
의 發展의 劍期의 人 章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학교가
과학기술을 기울여줄 것을 呼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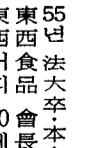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民族의
大學으로서 民族의 名譽와 稱持에 欲
하는 機構가 되려면, 나아가 온 人類
에게 우리 民族의 學問的、文化的力
을 成功의 으로 遂行할 수 있고 世界
의 有數한 大學에 比해遜色이
없는 教育과 研究의 實을

民族의 大學 걸맞는革新을

기술開發의 中樞的役割을擔當하고
여 많은 동료들로부터 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科學technology开发이 우
리 祖國과 民族이 이 時代를 사는 우
리 모두의 热誠이 그 하나로 結集
될 때에 서울대학교는 名實共存
로의 決斷으로 刷新方案을 마련하고
을 通过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開校 46주년을 맞는 이 뜻깊
은 날에 全 서울대인들은 祖國과 民
族에게 새로운 希望과 未來를 안겨 주
는 뜨거운 使命感을 암고 所任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開校 46
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科學技術 발전 우리 의

	洪性夫 60년 工大卒·本會理事 (주)大宇 社長 一金 30만원		李承東 60년 工大卒·本會理事 鮮京インダスト리 社長 一金 30만원		李金器 59년 藥大卒·本會理事 日東製藥 社長 一金 30만원		朴秀煥 59년 商大卒·本會理事 럭키金屬 社長 一金 30만원		金宗鎬 59년 法大卒·本會理事 前 政務長官·國會議員 一金 30만원		李圭澄 59년 文理大卒·本會理事 國民銀行長 一金 30만원		黃昌基 58년 商大卒·本會理事 保險監督院長 一金 30만원
	南正鉉 61년 工大卒·本會理事 大宇엔지니어링 社長 一金 30만원		李勇成 60년 商大卒·本會理事 中小企業銀行長 一金 30만원		金炯英 60년 商大卒·本會理事 慶南銀行長 一金 30만원		丁海昌 60년 法大卒·本會理事 大統領 祕書室長 一金 30만원		李在昌 60년 法大卒·本會理事 環境處長官 一金 30만원		宋彥鍾 60년 法大卒·本會理事 遞信部長官 一金 30만원		金仁煥 60년 法大卒·本會理事 曉星重工業 社長 一金 30만원
	尹世榮 61년 法大卒·本會理事 서울放送 社長 一金 30만원		孫京植 61년 法大卒·本會理事 安國火災保險 副會長 一金 30만원		奉鍾顯 61년 法大卒·本會理事 長期信用銀行長 一金 30만원		金京熙 61년 文理大卒·本會理事 知識產業社 社長 「W이론을만들자」 30권		姜賢旭 61년 文理大卒·本會理事 農林水產部長官 一金 30만원		徐立圭 61년 工大卒·本會理事 佑林콘크리트 社長 一金 30만원		白重英 61년 工大卒·本會理事 金星通信 社長 無線電話機 3대
	徐榮澤 62년 商大卒·本會理事 建設部長官 一金 30만원		李相培 62년 法大卒·本會理事 서울特別市長 一金 30만원		李丙基 62년 法大卒·本會理事 南海化學 社長 一金 30만원		金淇春 62년 法大卒·本會理事 前 法務部長官 一金 30만원		趙英吉 62년 文理大卒·本會理事 韓國觀光公社 社長 一金 30만원		李承英 61년 商大卒·本會理事 三星信用카드 社長 一金 30만원		韓永錫 61년 法大卒·本會理事 法制處長 一金 30만원
	辛國煥 63년 法大卒·本會理事 工業振興廳長 一金 30만원		李炯九 63년 文理大卒·本會理事 韓國產業銀行 總裁 一金 30만원	 <p>◇登山大會 參加 동문들이 배식현장에서 도시락과 각종 酒·飲料를 받고 있다.</p>					姜敏求 62년 行政大學院卒·同會長 儒城觀光 會長 은수저 10세트		崔奭喆 62년 商大卒·本會理事 코오롱商社 社長 코오롱엔트 1組		
	李海旭 63년 商大卒·本會理事 韓國通信 社長 一金 30만원		申熙澈 63년 商大卒·本會理事 金剛製靴 副會長 登山靴 5足	 <p>◇登山大會 參加 동문들이 배식현장에서 도시락과 각종 酒·飲料를 받고 있다.</p>					金泰球 63년 商大卒·本會理事 大宇自動車 社長 一金 30만원		李宇鎔 63년 法大卒·本會理事 同和藥品 社長 一金 30만원		
	盧健一 64년 文理大卒·本會理事 交通部長官 一金 30만원		李典九 64년 農大卒 本會 뉴욕支部長 一金 50만원		許永燮 64년 工大卒·本會理事 綠十字 會長 一金 30만원		韓亨洙 64년 工大卒·本會理事 새한미디어 副會長 一金 30만원·비디오파이프 5개		李聖揆 64년 工大卒·本會理事 三美綜合特殊鋼 社長 一金 30만원		陳穩 63년 商大卒·本會理事 動資部長官 一金 30만원		曹甲周 63년 商大卒·本會理事 新松食品 社長 간장 25樽子
	洪文信 65년 商大卒·本會理事 韓國鑑定院長 바이오리듬時計 30개		李大遠 65년 商大卒·本會理事 三星航空 社長 카메라 3대		朴容晟 65년 商大卒·本會副會長 東洋麥酒 副會長 스프라이트 3천캔		金恒德 65년 商大卒·本會理事 (株)油公 社長 一金 30만원		尹永錫 64년 商大卒·本會理事 (株)大宇 社長 一金 30만원		沈載榮 64년 商大卒·本會理事 吳氏機工 社長 一金 30만원		李秀正 64년 文理大卒·本會理事 文化部長官 一金 30만원
	李孝益 66년 經大院卒·同會長 三益樂器 會長 一金 30만원		李燦河 67년 經大院卒·本會理事 新韓會計法人 代表 一金 30만원		李祥義 66년 藥大卒·本會副會長 韓國宇宙青少年 總裁 一金 40만원		朴英俊 66년 商大卒·冠岳會 監事 公認會計士 一金 20만원		金榮石 66년 商大卒·本會理事 大韓教育保險 社長 一金 30만원		韓一成 66년 法大卒·本會理事 斗山飲料 社長 코카콜라 2천캔		吳明 66년 工大卒·本會理事 EXPO組織委員長 一金 30만원
	李泓熙 68년 經大院卒·同會長 三益樂器 會長 一金 30만원		文大源 75년 商大卒·本會理事 코리아제록스 社長 一金 30만원		韓灝鮮 74년 行大院卒·本會理事 農協中央會 會長 一金 30만원		金泓殖 71년 經大院卒·本會理事 금복주 會長 금복주 2천병		玄在賢 7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東洋그룹 會長 一金 40만원		李德勳 70년 商大卒·本會理事 興農種苗 社長 一金 30만원		徐勇雄 69년 師大卒·本會理事 도서출판 한샘 會長 一金 30만원

1958년 철옹으로
농촌사회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만해도 조사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어요. 이것을 시발로 근대화 이전의 농촌, 근대화가 진행중인 농촌, 근대화 이후의 농촌을 나

또 농촌 사회화를 탐색한 것은
우리 사회가 農耕社会에 그 연임을 두고 있다.
이며, 농촌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弟子선생님께서는 특히 한국 農村 사회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연구해 오셨는데, 최근에 관심분야의 아울러 이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스승..翻은시절, 美國의 農村 농민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특히 農村 사회조사방법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조사 방법을 알아 우리 사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弟子: 60년대 초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벌던 모슬과 혼합이 없던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펑단아한 모습이었다. 예술은 어떻게 그 환경을 지나고 계신지 교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 스승: 1주일에 한번 모교에 출강하는 것과 學術院회의, 친구들과 과의 정기적인 모임, 그밖에는 집에서 풀무하는 일에 전적으로 시간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시각에 같이 나에게 가장 충실했던 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社會學的 접근 통한 人間意識연구 계속



◆盧美惠



◆李 茜 甲

단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생활학,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미치지 않을 수 없어졌다. 요즘은 자연과학적 측면에서의 '의식'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를 마감했 습니다. 최근에는 심리 학자들이 '의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연구

〈對談者〉

- **스승: 李 萬 甲**
〈前문리大學長·명예교수〉
- **제자: 盧 美 惠**
〈66년 文理大卒·여성개발운동
조사연구실장〉

에 대해
돌봄들이나
회전방의
각별한 경각심
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시던 말씀
연판이 되겠습니다만,
천년대를 대비해
서울대
학교가 지향해야 할 전략
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의 와중에서도 온을 날 전란에 섰던 것 같습니다. 이민들의 근대화를 이루 었으니까요. 그러나 近代化(근대화)가 너무 쉽게 이루어졌는데 문제 가 있었습니다. 근대화 라는 미명하에 인생의 가치나 건전한 사회발전에 대해서는 등

서울大人 올바른思考가 나라장래 좌우

를대로
여기해
책도 봄
러운것이었어. 그걸데
총사회를 연구하면서
돌궐
모유성이
그만나가고
급속하게 전통교는
화이
이면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처방법을

서울大 | 재하는가를
人間性이 일기위해
는, 즉 「意識」의 문제를
무엇인가하

서울大學校와 함께
셨는데 그동안 서울
학교와 서울大人에 대
지니고 계신 생각을
려해 주십시오.

도 했지만 세계의 대학
을 지향하는 서율대학의
현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서관의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의사와 책상을
갖춘 공부방을 원하는
것인지, 자신의 텔레비
원하는 것인지도 구분이
모호한 때도 있어요.

▲ 第 子 : 서울대인의 문제점을 규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한걸음 나아가 윔로사회학자로 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에 관해 진단과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 스승 : 6·25와 같 은 戰亂을 겪기도 했습 니다만 그래도 우리 민족은 운이 좋았던 편에

돌봄들이 이러한 저세대 써 모교를 바라볼 때 올대학교가 올바르게 아갈 수 있고 서울대를 뽑게 나아간다는 것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 럼 보장될 수 있다니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회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의식(自我·民族·階級의식)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弟子**: 말씀을 들다
보니 새삼 선생님의 끌 없는 탈구열에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그럼 화제를 잠깐 돌려 선생님께서는 저의 반세기를

적절종의 경향이 강했라고 여겨집니다.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마음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요즘의 연구들은 비약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옛날과 같은 열정은 찾아보기가 어렵운 듯 합니다. 한편 제가 圖書館長을 지내기

하고 볼 보다 면의 완성도를 더 줄 아는 용기를 아님 생을 발견하는 것이 서과제라

습니까.
눈 아래 교수회관에서
가끔 펼쳐진 冠岳館에
데 그때마다 관악은 차를 봄 때가 있는
아름답고 꽃이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모조록 서울대학교가
오래도록 이 사회의 밤
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同窓會館 冠岳



빠짐없이 會費내어 參與하는 同門되자!

年 1回 納付하시는 會費는 母校사랑과 同窓會活性化에 參與하는 徵表가 됩니다. 特히 動靜欄을 利用하시는 同門께서는 會費納付에 솔선해주시기 바랍니다. 來年부터는 會費 未納同門에게 不得已 同窓會報 發送을 中止

서울大學生同窓會

年會費 내주신문

理事 8월 7일 ~ 10월 1일
一般 7월 10일 ~ 8월 1일

人名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珠56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
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會 賽 子 是 —

• 一般會員	1만원
• 理 事	5만원
• 常任理事	10~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 會 長	50만원
• 會 長	100만원

◆ 美術大觀

한국현대문예사대표	金興漢(49)변호사
국제협력단체	羅東鏞(55)전진상사사장
(재)양영회이사장	朴萬鏞(58)대법관
대한전신사장	朴秉璉(66)동남증권회장
서원대교수	朴成達(60)감사원감사위원
대한공부부	朴禹東(57)대법관
천화당한의원장	朴有信(74)천안지원장
교학체육부	朴鍾植(42)변호사
한양대학장	朴千緒(50)퓨리나코리아전무
한국조세연구원	徐廷元(54)국세청간세국장
미상기획원장	成文鏞(67)수원지법부장판사
유성건설산업	孫鍾鶴(64)대전법원종합전재판부부장
방송신의위원회	宋敏鏞(59)대전대법정대교수
2종교과서협회장	朱庸植(55)프레스센터이사장
연합통신국장	安明基(56)변호사
대한필료사장	申昌東(61)변호사
정읍문화사사장	辛奎華(60)극동정유부사장
서울대자연대교수	吳聖植(57)인제대학교수
경영자總聯書회장	安景相(57)변호사
연합통신국장	吳世彬(72)여주지원장
서울대교수	吳在德(57)한국화약부회장
서울대교수	禹益源(58)경남부통사장
예술원정회원	尹琴重(54)前법대오대법회장
예술원정회원	元世勳(74)용산구청장
여성여대교수	李元(68)동자부서유국장
여성여대교수	李炳守(62)투신기계사장
서울교육대학교수	李相滿(63)롯데제과구매이사
동국대교수	李相七(56)전북부지사
한국대교수	李壽善(62)대한전신사부국장
한국대교수	李星圭(56)신한부자금고
한국대교수	李聖魯(68)삼성증권기획부자

◇ 師範大學	
姜兌中	55 경원중교장
姜河九	72 경향신문사부장
高俊植	55 구전중학교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權允遠	54 충남대학교수
金南祚	51 숙명여대교수
金奇煥	52 서울고교장
金德順	53 영신고교장
金東均	70 내소글로리아스틱
金商俊	52 (前) 서울시교육감
金成坤	53 전주여고교장
金聲代	66 단국대교수대장
金永敦	49 대한상사회회장
金永璣	56 포항대교수
金用駟	59 숙명여대교수
金永璣	56 (前) 국회의원
金潤五	58 삼우종교감
金恩珠	55 가람중교장
金仁煥	62 태흥건설부사장
金在恩	54 이화여대교수
金鍾祺	55 인천성현고이사장
金俊彥	54 태평양화이사
金重鉉	62 구일중교장
金讚宰	58 지도자육성재단
金喜粉	57 문중중교감
金泳業	60 당곡중교장
閔驛翼	66 (前) 고대기회장
朴漢植	53 한국교원대교수
朴商喆	56 마로니가구회장
朴松子	67 KAIST 실장
朴燦久	60 대영교장
朴奉鏞	58 (前) 수원여대교수
朴壽男	58 (前) 수원여대교수
申文燮	64 대우공전교수
梁競淵	54 청주교육대학장
尹明烈	57 문정중교장
尹畢姬	56 영등포여중교장
劉俊永	60 계성여고교수
李大榮	56 명지대교수
李庸周	54 서둘교수
李正淑	73 한성대교수
李種冕	60 풍남중교장
李鎮淳	61 삼산고교장
李昌九	60 한양대교수
林昌圭	60 삼명여대부속여고
林弘道	64 영재교육사사장
張忠植	52 단국대총장
鄭然優	49 전인터네셔널여대교수
趙吉濬	60 서울시교육청과장
曹圭基	67 서울시교육부수석부총장
崔正基	67 부산여대교수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朴任遠	61 유선사장
朴相殷	61 리스산업협회장
朴成錫	65 한라자원(주) 대표
朴榮福	63 (주) 우빈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基善	55 무계화방대표
許泰辰	64 교육정책연구소장
韓圭彥	66 놓어친진희수부부장
韓相烈	62 학교수수부부장
郭厚燮	56 학성신율금고회장
洪起龍	57 광주교육대교수
黃宗建	62 영지대교수
黃哲秀	51 (前) 국회의원
朱萬映	56 삼성고교장
朱龍圭	54 순창구립중교장
朴光七	67 영신고교역사장
朴基能	60 서진특수강대표
朴大祐	59 대신개발금융회사
朴明植	63 한국컴퓨터부사장
朴英珠	63 이간산업(주) 사장
朴旭圭	52 한라그룹고문</

股會員

新刊

■ 내가 걸어온 公職30년

- 金讚宰著(58년 師大卒·前문교부차관·本會이사)

하급공무원으로 시작, 次官에 이르기까지 公僕의 길을 걸어온 저자가 그간의 노정을 회고하면서 공직자가 청렴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들려준다. (195쪽·4천원·한누리판)



■ 韓國教育의 나아길길

- 辛世浩編(6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수석연구원·本會이사)

교육개발원의 연구진들이 우리교육이 당면한 만성적인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해결방안으로서의 종합처방을 제시한 후 이들이 치유됐을 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278쪽·6천원·한국교육개발원판)

公演

■ 슈베르트 피아노시리즈 Ⅲ

- 11월 24일 예음홀

『예음』이 매년 기획하고 있는 全曲연주시리즈의 일환으로 文龍姬(66년 音大) 동문이 낭만주의 대가 슈베르트의 피아노곡들을 연주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잘 알려진 「4개의 즉흥곡」을 비롯, 소나타 B플랫장조·A단조를 들려준다.

■ 崔淑順피아노독주회

- 11월 20일 예술의전당

69년 모교音大를 졸업한 崔淑순은 그간 꾸준한 공연활동과 함께 교단에서의 강의를 겸해 이론과 실기의 접목을 구현해왔다. 音大동창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바흐·베토벤·슈만·슈베르트의 피아노곡들이 오른다.

■ 소프라노 梁銀姬독창회

- 11월 9일 세종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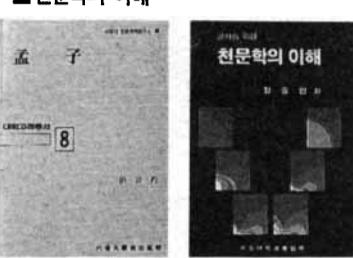
75년 모교音大를 졸업한 梁銀姬는 현재 상명女大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트라

■ 孟子

- 洪寅杓編著(64년 文理大卒·도교교수)

번역, 원문, 주석, 요지로 나누어 「맹자」를 쉽게 이해하고, 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존의 번역본에 비해 체제나 번역의 용어·방법, 주석이나 문장파악, 허사의 용법 등에 있어 특색을 지니고 있다. (510쪽·9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

■ 천문화의 이해



- 崔勝彥著(76년 自然大卒·도교교수)

교사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중 천문화를 교육하는데 개념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나, 어느 수준 이상의 지식을 학생들로부터 질문받았을 경우에 효과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집필한 책. (210쪽·6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

우스 「장미빛리본」을 비롯, 라흐마니노프·드비시·윤이상 등을 연주한다. 피아노협연은 權景淳(73년卒)동문.

■ 서울마스터즈정기연주회

- 11월 16일 호암아트홀

全用宇(82년 音大卒·제1vn)
方泳昊(84년卒·제2vn)
鄭英美(84년卒·Va)동문이 꾸미는 현악 4중주 일곱번째 무대. 金容培(79년 大學院卒·Pf)동문의 협연으로 드보르작의 피아노5중주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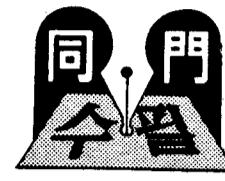


장조Op81, 하이든, 베르디가 연

(이) 세상 모든 소녀들이 손에 손을 잡는다면 지구를 둘러싸고 원무(圓舞)를 출 수 있을꺼야/이 세상 모든 소년들이 사공이 된다면 그 배로 파도위에 훌륭히 다리를 놓을 수 있을꺼야/그렇게 되면 세계는 하나가 되어 둉글게 둉글게 원무를 출 수 있을꺼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잡는다면)

뽈 포르(佛詩人 1872~1960)의 시 “원무”는 인류의 궁극적 이상인 화합과 평화

것이다. 「하나의 세계」란 사실상 꿈속의 유토피아일 것 이지만, 적어도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생활의 행복을 충탄으로 서로 위협하고 파괴하는 일만은 없어야 하



상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난민을 구제하고 다같이 인간답게 살아가자는 것이다.

하나의 조국이기를 갈구하는 남북통일 과제야말로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니 이 숙제 해결이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간생활의 기본행복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시(詩)가 없는 세상은 저 밤하늘에 별이 없는 삵막한에 비견할듯 하다. 별들이

미래사회 열어주는 詩

를 담아 널리 애송되고 있다.

이 시가 시사하는 세계화 학의 실현이란 얼마전까지 만 해도 막연하고도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의 역사의 흐름은 도도하게 물길을 바꾸어 세계판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양극관계였던 미국과 소련이 평화공존을 주도하고 오랜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이 하나가 되고 우리 한국도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권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등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봉포르의 시인으로서의 기원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 여겨진다. 실질적인 화합과 평화조성은 이제 우리시대의 과제라 할



金后蘭
本名: 炯德

[58년 師大·公益투자 관리위원회 委員長]

는 것이다.

세계여성대회때 평화를 기원하는 토론의 자리에서 각국의 여성대표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것이 있다. 무기를 만드는 돈으로 생기를 만들어 농사에 힘쓰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지구

해나 달처럼 없으면 큰일 날 대상은 아니겠지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꿈이 있는 아름다움이다. 식사후 향기로운 차를 마시듯 흘러린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은 우리의 정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쁠 때는 더욱 기쁘게, 슬플 때는 더 슬프게 감정을 순회시켜주는 것이 시나 음악이다. 사람을 마음속 깊이 빚을 보내는 것이 예술(수만)이기도 하다.

이 세상 모든 소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는 원무를 추자던 시인의 꿈은 인류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미래사회를 열게 하였다. 이 흐름이 결코 막히거나 빗나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 테너 金東濠독창회

- 11월 19일 세종소강당

80년 모교 졸업후 비인국립을 대를 거쳐 루체른 시립오페라단에서 활동해온 金동호의 이번 공연은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전곡으로 꾸며진다. 피아노는 尹榮和(80년卒)동문.

■ 한국페스티발양상불연주회

- 11월 19일 예술의전당

18세기의 실내악을 위주로 박은희(73년 音大卒·Pf)등이 협연. 하이든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모셀레스의 7중주를 비롯해 모짜르트등이 연주된다.

■ J-M데뷔콘서트

- 11월 6일 예음홀

모교音大 재학중인 李민영(Pf)의 첫 독주무대. 지난 91년 서울대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협연한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흐의 전주곡과 푸가11번을 비롯, 모짜르트 드비시 리스트를 연주한다.

■ 서울아카데미앙상블정기연주회

- 11월 4일 예술의전당

여성만으로 구성된 실내악단의 청단26주년 기념무대. 국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여류음악인 30여명이 모여 베버, 살리에리, 코렐리, 브리튼을 연주한다.

모로니 각종 연구 학술 경비를 들여싼 짐들에 없 애고 연구의 공정성과 확보기 위해 연구비 관리규정(가족)을 마련했다.

연구소등 3갈래로 충소하
고 민간기업이나 학술재단
같은 외부기관이로부터 총
장명으로 수령한 각종 연
구비는 대학연구처(단
과대학(원) 및 연구소장이
수령한 연구비는 달해 기
관의 연구비관리 전담부서
가 직접 관리도록 했다.
모교 朴相大연구처장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내
외 연구수요가 급증, 지난

해 볼수가 파악한 것만도 연구비 총액이 2백 80억원에 달했으나 대학 전체 차원에서 표로이 될 관리규정이 없었다"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연구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팀을 이끌어갈 소지가 줄어들면 구활성이 보다 활발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것"이라 고 말했다.

공정성 확보 위해 規定 마련

研究費 관리 一元化

대학으로 빨려들기 위해서는 대학운영전반에 관한 일대재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앞으로 대학운영에 있어서 학제적 협력을 통시하는 연구활동조성을 힘썼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학사운영
체계방안』에 따르면 현재
IT 등 일부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수연구평
가제 및 승진심사제를 내
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각
단과대학 및 계열별 평가
위원회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논문, 저서, 강의과목

급 등의 혜택을 주기로
다는 내용으로 모교
교수와 한
사회의 보수성과 서둘러 대가
대학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을 고려해 볼 때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교는 또한 학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
획위원회 산하에 「대학설
사 분석위원회」를 설치, 매
년 「대학본부」, 「단과대학」
연구소 등 대학내 각기관에
대한 종합설사를 실시키로
했다.

金鍾云 총장 記者會見서

교수評價制 등 내년부터 實施키로

學事운용藓案 발포



2學期 드록생 짐작기 2단 6천정도 짐작기

로
모교에
알려졌다.
따르면
1만 9천 72명,
5천 1백 70명,
1천 9백 35명으로
2학기 때 2만 5천 1
백 39명에
증가한
것으로
비해
4백 38명이
늘어졌다.

한국현대학교로서의
상률
높이기 위해 박사
정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원생에 대한 재정지원
을 늘리기로 하는 학원
교육과정도 전통과 목
지나친 세분화를 막고
양교육에 치중하는 방향

「東讀에 殘在한 일부 漢上古音」 주제의 제50회
술발표회를 국문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표시싸인, 구제표시싸인
설명표시싸인 등으로 그
분, 제작되었는데 금년
부터 단계적으로 캠파스교
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싸이시스템이 있
을 때면 그동안 불편했던

참가한 이들의 토론회에서
는 다음 세대의 학문을 이어
끌어갈 이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적 장치가 현재로는 부족하
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
어 이들에 대한 학제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자리
였다.

지난달 4일 모교가 학년도 입학시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어과목을 포함한 면서 일본어과목을 포함한 지 않은 것에 항의, 대회에서 외국어 고생생들이 낸 헌법 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이 7명이 합의, 2명이 위헌 판결해를 밝혀 청구를 기각했다.

을 보장하고 있이며, ▲이 본어를 선택과목에서 제외 시킨 것은 교육법 제 1 조의 2 및 개정률 교시 행령 제 71조의 2에 이 거한 저법한 대학의 자율 권 행사이며 따라서 본교의 일시안으로 인해 현법회학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의 전법한 자율권 행사의 결과 초래된 것으로 부른 이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매주 수금 오후
시 3시에 개별지도를
고 있다.

20日까지 접수해

冠岳山 입사원서

관악사 행정실에서는 이단
을 대상으로 내년도 관악사
입사원서를 접수한다. 학교
학생은 입사원서, 주민등록증
등본, 성적증명서 각 1통씩
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학원생은 12월 3일부터
까지 접수한다.

「세대 授協 育成 토론회 회서 해야」

장(高健 교수)에서는 지난 6월 6일 모교 대의 그간의 전산망인 SNUNET을 광범위한 국제전산망인 INTERNET과 결합하여 시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원활한 사용을 위해 교수·교수 전용설정을 개설,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교수 전용설정은 X-미널 1대, LAN-PC 1대를 갖춰 모교 전산망에 접속되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도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하다.

정부서나 회계부문에만 국
한됨으로써 교육 연구 활동
등 대학 본연의 역할과 학
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 획기적인 운행체제
으로 주목되고 있다.

학술발표회 개최
장
모교 韓國文化研究所(李相澤교수)는 지난
24일 연변대학 조선언문학
연구소 교수이며 중국조선
어구법학연구회 주임학자
과 중국조선언어학회 이사장
인 최유갑교수를 초빙하

冠岳

캠퍼스 싸인시스템 본형 試作品 선보여 -